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국제통상학과	이름	김xx
파견국가	Finland	파견도시	Jyvaskyla
파견대학	University of Jyvaskyla	파견기간	2019/08/17~ 2020/05/28
귀국여부	귀국 o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i> 핀란드 중부에 위치한 유바스쿨라는 헬싱키(핀란드수도)와 대략 4시간정도 떨어져 있으며, 핀란드의 큰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전반적인 핀란드의 풍경은 나무, 호수 등의 자연이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조용하여 다소 지루할 수 있다. (신창과 비슷함) 대부분의 핀란드 사람들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내성적이지만 친절한 편이다.
2019-2학기 수업	<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 수업은 우리나라와 달리, 각 과목마다 수강시기가 다르다. 이 말인즉슨, 한국처럼 한 학기 내내 듣는 것이 아니다. 자세한건 이는 수강신청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튜터가 알려줌)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다른 과 학생들은 수업 과목 선택에 제한이 있어서 다른 과목을 듣지 못했다. Intensive Summer Course in Academic English (추천) 이 과목은 정식학기 시작 전에, 미리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수업이다. 나는 이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한 학기 동안 어울리며

지냈다. 그만큼 친구 사귀기에도 좋고, 미리 전공과목을 수강 전 기본적인 영어작문, 발표, 토론 등을 하는 등의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다. 다만 내가 파견 당시에 일본인 친구가 절반 이상이어서 다양한 국적의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다.

Basic Academic Writing for international Students (추천)

매주 과제로 에세이를 적어,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는 수업이다. 열심히 과제를 한다면 사소한 문법 실수, 표현, 등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업 시간에는 특정한 주제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주된 수업이다.

Survival Finnish1(추천)

제목에서 알 수 있드시피 기본적인 핀란드어를 배운다. 숫자세기, 간단한 자기소개, 기본적인 단어 등을 배운다.

로사 교수님 적극 추천한다. 정말 친절하시다!! 핀란드에 와서 핀란드어를 배우는 경험을 하고 싶다면 적극추천! Survival Finnish 시험은 말하기 시험이 없다! 단) Finnish 1 수업은 말하기 시험이 있음.

Introduction to Entrepreneurship (추천)

필수과제를 제외한 선택과제를 수행한다면,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필수과제를 하지 않는다면 시험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매 수업의 내용을 정해진 기일 내에, 분량을 작성하면 요약과 내 생각을 적으면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다. 수업 자체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가로서의 덕목 및 자질 등을 배운다.

Introduction to Corporate Communication (추천)

교재가 필요하다. (도서관에서 대여) 수업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으나,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시험에서 매우 헛갈린다. 마지막 날에 강연자들이 강연을 오시는데 이 내용 또한 시험에 출제된다.

2020-1학기 수업	코로나로 인해 대면강의를 하지 않고, 대부분 온라인 강의를 함. Finnish for Foreigners1 대면강의 함(추천) 지난 학기 Survival Finnish를 들었지만, 제대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뭐라도 배우자라는 생각으로 Finnish 1을 선택했다. 두 과목의 차이점은 survival Finnish의 과목에서는 문법을 거의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다. 다양한 콘텐츠(뉴스보기, 조별 활동, 등)을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다. Strategic Management 대면강의함 (비추천) 교수님은 대부분 피피티를 읽으시고, 필서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추가점수를 받으시려면 70퍼센트의 출석률을 넘기면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출석점수 없음) 또한 발표를 하면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시험은 전부 서술형으로 시험문제가 총 6문제였다. 매 피피티 마다 시험 예상문제를 알려주시나, 범위가 상당히 많아서 미리 공부 하지 않으면 힘드며, 피피티 자체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상당히 많다. Introduction to Management and leadership(추천) 코로나로 인해 완벽한 인터넷 강의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대면 강의는 다소 다를 수 있음.) 과제가 총 2번이었고, CEO의 강연을 보고 마인드맵 그리기, 유튜브 영상으로 경영의 역사를 보면서 요약본을 적어야한다. 수업은 피피티로 교수님의 얼굴도 한번도 보지 못한 채, 목소리로만 들었다. 시험은 객관식이었고, 수업 내용은 무난했다.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 오리엔테이션 기간이 강당에 모여 대략 5일에 걸쳐 진행된다. 대부분 학생들은 첫날에 출석률이 좋으나 점점 출석률이 저조하다. 따라서 미리 오리엔테이션 전에 스케줄표가 인터넷에 나와있으니, 본인이 필요한 부분에 참석해서 들으면 된다. 초반 학교 적응을 위해 임의적으로 튜터가 배정된다. 튜터가 첫 날 유바스쿨라에 도착하면, 마중을 나와 기숙사로 데려다주며, 향 후 학교투어 및 시내투어 등을 해준다.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ESN이라는 학생단체 (동아리 같은 개념)에 가입하면 ESN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Ex) 인터네셔널 디너파티, 클럽, 핀란드 특별기념일 행사, 여행투어, 사우나이벤트 등등(단, 가입비와 행사 별 입장료 있음)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날씨는 한국과 다르게 화창하고, 하늘이 깨끗하다. (개인적으로 핀란드에 있는 동안 8~10월, 4~5월이 날씨가 가장 좋았음) 날씨는 체감상 가을 날씨로, 따뜻하지만 바람이 불어서 우리나라에 기후와 다르기 때문에 추울 수가 있다. 또한 개인적인 견해로 다소 날씨의 변덕이 있는 편으로 눈, 비가 자주 온다. (*겨울에는 칼바람이 불기 때문에 다른 수기와 마찬가지로 롱패딩과 전기장판은 필수다.)또한 미끄러지지 않는 겨울신발은 필수라고 말하고 싶다. 핀란드는 눈이 겨울에 많이 오고 땅이 자주 얼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다.

	여름에는 해가 길어서 해가 늦게 지고, 겨울에는 해가 짧아 낮에 금방 어두워진다. 따라서 겨울에는 햇빛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타민 D는 필수다. (사실 비타민 D를 한국에서 사갔는데, 핀란드 약국에도 구매하기 때문에 굳이 짐이 많다면 한국에서 사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안전	<i>현지 안전 상황</i>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 (유바스쿨라 기준) 그 이유로 하나 꼽자면, 우선 밤 늦게까지 영업하는 가게가 많지 않다. 따라서 늦은 밤 우리나라와 달리, 사람들이 많은 편은 아니다. (술은 저녁 9시 이후에 마트에서 살 수 없다. 물론 바에선 관계없이 영업시간 내에 술 구매 가능) 새벽 3~4시에 귀가할 때가 꽤 많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다. 물론 시티센터에 가끔 술 취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이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경우는 없었다.
숙소	<i>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i> <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 우리나라와 달리, 학교 내에 위치한 기숙사가 있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해, 학교에 위치한 기숙사가 아닌 일반 핀란드사람들도 거주하는 월세를 내며 숙소(집)에 살았다. 하지만 교환학생 신청 시에 숙소를 신청하기 때문에 서류 작성만 잘 했다면 도착 후, 숙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나는 원했던 곳은 아니지만, KOAS(임대 아파트) 소속인 Ristonmaa 2인실로 배정되었다. (각자 방이 있음) 집이 워낙 넓어서 처음 도착 시, 화장실, 샤워실, 키친, 다 구비되어 있었으며 방도 넓어서 너무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그만큼 내가 살았던 곳이 교환학생이 거주한 주거 중에 제일 비쌌다.

	나는 c동에서 거주해서, 세탁기는 B빌딩과 H빌딩 지하에 위치하여 나갔다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세탁비는 무료지만, 세제는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이용해야 한다. (건조기도 있음) 또한 각종파티나, 모임이 이루어지는 common room, 사우나 또한 B빌딩과 H빌딩에 위치해 있다.
식사	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0) 홈스테이 () 외부식당 (0) 직접 요리 (0)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전반적으로 핀란드 음식은 건강하고 싱거운 편이다. 한국에서의 자극적이고 매운맛, 단맛과 거리가 멀다. 학교 식당은 뷔페 형식으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 (비건, 일반식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잘 메뉴를 확인해서 골라 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돈을 내야한다. 마지막까지 난 주위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눈치껏 가져가곤 했다. *Student union에 가입하면 학식을 2.6 유로로 먹을 수 있다. 마트에서 식재료가 의외로 저렴하기 때문에 요리를 해서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시안 마트가 seppala prisma 내에 위치해 있어서 한국 제품(김치, 라면, 등)이 있어 구매 할 수 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 유바스쿨라 페이스북 마켓으로 이용하여 중고 자전거를 구매했다. 학교와 시티센터가 그리 멀지 않아 나는 주로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다녔다. 가끔 버스를 이용했는데, 버스는 정해진 기간 (1개월, 3개월 등)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무제한이용권과 이용할 만큼의 돈을 미리 충전식 이용권이 있다.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출국) 핀에어: 약 42만원(youth) 입국) 여행사 이용(핀에어, 아시아나): 약100만원	총 대략 142만원. *입국시, 독일 경유함.
Fees	Student union- 133.50euro (academic year)	
보험료	SIP 396.08euro (기간: 8/01~ 07/01)	핀란드 교환학생들이 대부분 SIP로 이용해서 나 또한 이를 이용했다. 다만 이 보험이 핀란드내 에서만 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길 바란다. 나는 입국 전 이미 가입했고,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아 알아보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SIP는 핀란드내 에서만 보장된다고 함. 따라서 보험가입 전 확인 필요.
숙소	Monthly 326.59 euro	초기에 deposit 있음
식비	가계부를 적지 않아서 잘 모르겠으나, 마트 식재료 자체는	

	크게 비싸지 않다.	
교통비	대부분 걸어다니거나, 자전거 이용	자전거 중고가격: 70euro
책값	대여가능(교재 구매하면 비쌘)	하지만 교재 재고량이 선착순이므로 첫 수업 끝나고 교재가 필요한 과목이면 바로 도서관 가는거 추천)
기타1		
기타2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저는 출국이 얼마 안 남았다면, 영어 섹션 중에 스피킹을 백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 리딩, 리스닝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모두 알다시피 일상생활에서 실 사용하는건 스피킹입니다. 친구를 사귄때도, 수업 중 발표나 토론 수업도 스피킹에 자신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챙겨서 좋았던 것들은 조미료(고추장, 미원, 등)를 챙겨가면 요리할 때 유용합니다!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음식을 대접해주면서 친해질 수 있고, 한국음식을 하면서 향수병도 잠시나마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친구들에게 줄 저렴한(열쇠고리와 같은) 한국 기념품도 사가져 가면 정말 유용하게 잘 씁니다. 반대로 의외로 필요 없었던 물건은 콘센트, 옷들입니다. 옷의 경우, 아실지 모르겠지만 H&M이 스웨덴 브랜드여서 핀란드에서 한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쇼핑하실 수 있고, 어차피 한국 귀국 전에 많은 짐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두꺼운 몇 벌의 옷만 가져오세요. 콘센트는 정보를 드리자면 모바일 학생증(student union가입)이 있으면 "clas ohlson" 가면 한국과 비슷한 가격으로 콘센트뿐 만 아니라, 각종 잡화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꿀팁으로는 식당, 가게 등을 가게되면 학생 할인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면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학생 할인 되는곳: "Taikuri"(햄버거집), "Haiku"(스시집), "espresso house", "Tee Leidi" - 카페

학교의 시설을 마음껏 사용하세요. 저는 마지막 학기 때 이용했는데, 학교 헬스장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학생증이 있어야함). 또한 학교 근처에 아트갤러리(박물관), 시티센터에 위치한 아트갤러리 등 이 매주 금요일마다 무료입니다.

대부분 유럽권 교환학생들은 유럽여행을 꿈꾸시고 오기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핀란드

오기 전에 여행계획 미리 짜주세요. 어영부영 여행계획 미루다가 어설피게 시간은 가고 한 학기가 지나고 다음학기에 되어 코로나로 일찍 귀국합니다. (경험담)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듯, 모든 건 자기 하는 거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교환학생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로망과 먼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견 전, 다른 교환학생들의 후기를 읽잖아요. 그 후기들 속엔, 파견국가에서 다들 폭 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소위 말하는 인싸들의 삶을 엿보기가 쉽습니다.

저 또한 파견 전 수많은 긍정적인 글 속에, 그 곳에선 저 또한 인싸가 될 것 같은 막연한 자신감을 가지고 핀란드를 갔습니다. 초반에는 대부분의 학생들과 같이 많은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성격자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기를 안 좋아하고, 몇몇의 외국인들이 나의 영어에 못 알아듣겠다는 뉘앙스를 하는 등, 보이지 않는 유럽인들의 아시안 차별 등을 당하면서, 저는 알게모르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 할 기회를 최대한 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점점 파티나 모임 등에 빠지고, 모임은 피곤한 곳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기 마지막 즈음에 한국인 중에 제일 많은 외국인들과 어울렸던 오빠랑 친해지게 되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었는데, 이 오빠 또한 유럽인들 속에서 다소 차별을 느꼈지만, 이들 사이에 주눅들지 않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하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면 됩니다. 저는 아마 다시 돌아가도, 유럽인들과 어울리지 못했을 겁니다..

저의 예시를 들자면, 다른 교환학생들은 교환학생들끼리 교류를 할 때, 저는 소수의 몇몇의 일본인 및 한국인들과 둘도 없는 핀란드 친구와 지냈습니다. 사실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저의 교환학생의 삶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친구들도 소중하지만, 아까 앞서 말한 핀란드 친구와 대부분의 시간을 지내면서 정말 좋은 추억을 1년동안 쌓았습니다. 저는 국적이 다른 친구와 한국에서 친한 친구처럼 깊은 관계를 가진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삶, 본인의 계획대로 되면 좋지만, 항상 인생은 많은 변수들이 있고, 그 변수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릅니다. 그러니 본인이 계획한대로 안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입학부터 저의 꿈이었던 교환학생을 이뤄냈고, 단순히 어학실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그 곳에서 몰랐던 여러 유럽나라들의 다양한 나라, 문화 속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알게 되고, 그 안에 속해있는 또 하나의 나를 알게 되는 값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큰 자산으로 남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평범한 핀란드 대학교 학식	5월의 <u>저녁 9시</u> 백야 풍경
	
1월 어느 등갯길(진짜 얼음길이에요)	시티센터 불빛축제 (유바스쿨라 홈페이지 일정 참조)
	
흔한 등갯길 풍경	내가 거주했던 ristonmaa